



◇이효정 씨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아기 돌보기보다 더 손이 많이 간다. 그동안 집안일 돌보는 아줌마가 50번이나 바뀌어 이제는 직접 돌볼 수밖에 없지만 힘든 줄 모른다. 오른쪽은 초등학교 5학년때 어머니랑 찍은 사진. 사진=고영배 기자



긴 머리 땅아 틀어 은비녀 꽂으시고, 옥 색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 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배 꿀을까 치마끈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 가며 살아오셨네.
(이효정 씨 노래 '우리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 나의 노래는 당신의 숨결입니다”

불자 가수 이효정의 '효심불심'

◇사위고 딸이고 손자
고 가리지 않고 특하면
주먹질, 발길질에 심
한 욕설까지 퍼붓는
어머니. 그래도 이
효정 씨는 가까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트로트 가수 이효정 씨. 사람들은 그녀를 효녀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작 본인인은 “효녀는 못 된다”고 일축한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이상한가요? 너무 당연한 거죠”라고 오히려 되묻는다.

어머니 봉양할 수 있다는 사실...감사

5월 21일 서울 아현동에 소재한 이효정씨 집. 오늘도 이씨와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힘겹게 씨름한다. 어머니는 조금만 못마땅해도 마구 소리를 지르며 성을 낸다. 심지어는 주먹까지 휘두른다. 가장 아끼는 막내딸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은 17년 전. 이씨가 결혼을 하던 바로 그 해다. 4남 2녀 중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10여 년간 병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혼신의 힘으로 간호하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스무 살에 중풍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어머니 차례인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의 발병과 함께 이씨의 신혼기도 끝났다. 밤새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는 어머니와 함께 결혼의 단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때부터 대소변, 식사 수발을 이씨 혼자 도맡아 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어머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울곤 했던 이 씨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했다.

국청사에서 키운 가수의 꿈

이씨의 집안은 경기도 남한산성 밑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다. 부모님은 모두 부지런한 분들이었고 농사가 끝나면 호롱불을 켜놓고 막내딸 이씨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이씨가 즐겨부르는 ‘노들강변’도 산성 위에 앉아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다. 그러나 오빠가 정신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은 깨졌다. 오빠가 무서워 집에 못 들어간 이씨가 찾아간 곳이 국청사다. 당시 국청사에 머물던 노스님은 어린 이씨를 무릎에 앉히고 민요를 가르치고 ‘효심이 불심’임을 가르쳤다. 불자들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씨는 오빠 병간

호로 공부를 못할 바에는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유명하진 않지만 7집 가수, 팬클럽도 생겨

어머니와 함께 산지 9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병의 차도가 없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씨는 마음의 병마저 생겼다. 무언가 풀과구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동안 잊었던 노래를 다시 부르기로 시작했다.

이 때 이씨를 인정한 작곡가 조운파씨가 기념음반을 내자며 제의했다. “성공은 못해도 좋지만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이씨는 그때의 심정을 밝혔다. 이렇게 10년째 가수 일을 하다보니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7집 음반을 낸 프로가수가 됐다.

규모는 작지만 팬클럽도 생겼다. ‘내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이씨의 노래를 들은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이씨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팬클럽 회원들은 2001년 이 씨를 위한 홈페이지(www.trotstar.com)도 만들어 주었다. 이 씨는 ‘KBS 가요무대’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몇 안 되는 가수 중 한 명이다. 그만큼 이씨의 ‘어머니 노래’를 듣고 동감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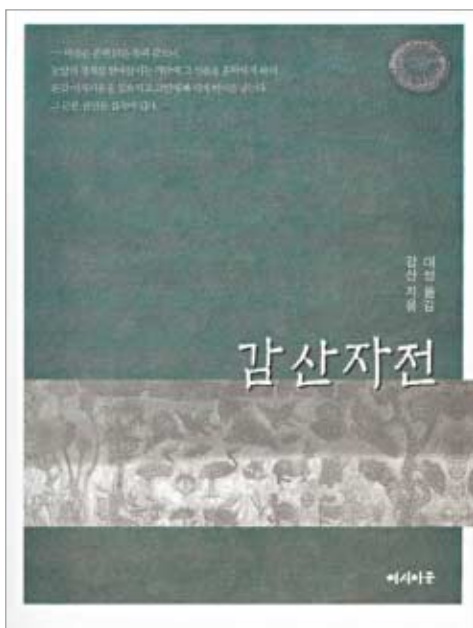
좋은 엄마 노릇 해보는 것이 '소원'

이씨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아버지가 제일 고마웠다고 말한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이씨를 불러 앉히고 “사위도 자식이니 장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씨는 집안 일을 제대로 못 돌봐도 싶은 내색 한번 안 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고맙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딸 해미(14)와 종언(12)이가 자라는 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효녀라지만 자식들에게는 나쁜 엄마인 셈이죠.” 이씨의 소원은 좋은 엄마 노릇 한번 해 보는 것이란다.

최근 수십년간 우리 민족은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이란 명예를 벗어던졌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공허함을 느낀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천륜의 근본인 효가 아닐까?

글=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주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년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감산** (慈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경, 자백 진가, 우의 지육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 麓山 오유봉에 법운선사 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계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 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